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
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
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
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화력
지휘국장 박정천중장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장거리포
병부대들을 사열하시였다.

연습에 앞서 인민무력부장
박영식대장이 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는 이제 곧 청
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
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집중화력타격연습을 개시하게
된다고 하면서 오늘의 포병화
력타격전은 위대한 선군조선
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하기 위한 수령사수전,
수령보위전이며 박근혜역적
에게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겨줄 백두산총
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정의
의 보복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날강도 미제와 박근혜역도는 침략적
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
사연습을 벌려놓고 히스레리적광기를 부
리다못해 지난 3월 21일 수많은 전투기
들과 특수작전병력을 동원하여 감히 우
리 최고수뇌부의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
한 천하무도한 《정밀타격훈련》까지 감
행하였다.

이것은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열
간망둥이들,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둔 비
루먹은 개무리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놈들의

악랄한 도발책동에 선제적인 서울해방작
전으로 단호히 대응할것이라는것을 엄숙
히 경고하였다.

천만군민의 운명이신 위대한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워보려는 미친개들에게
는 더이상의 경고가 필요없다.

오직 무자비하고 한계가 없는 복수의
불벼락으로 정의와 평화의 원쑤, 추악한
역적무리들을 재가루도 남지 않게 날려보
낼 때만이 세기적인 숙망인 조국통일대업
을 성취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
력자강의 힘으로 마련해놓은 세계가 아
직 다 알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최강의
타격수단들이 있으며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침략의 본거지들을 생존불가능

하게 들부시고 괴멸시킬수 있는 모든 준
비가 되어있다.

만일 놈들이 마지막몸부림으로 도전해
나온다면 우리의 모든 포병무력의 무자비
한 보복타격에 의하여 서울은 재가루만
날리는 죽음의 쑥대밭으로 변할것이다.

연설자는 끝으로 전선대련합부대 최정
예포병전투원들에게 수령결사옹위의 신
념, 멸적의 중요심을 만장약한 장거리포
들로 대집중화력타격전을 벌려 박근혜괴
뢰역적패당이 등지를 틀고있는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흔적도 없
이 날려보내자고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야전감
시소에 오르시어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
포병대집중화력타격진행계획에 대한 보

고를 청취하시고 연습개시명령
을 내리시였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
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
르며 번개같이 날오는 포탄들
이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괴뢰
반동통치기관들을 가상한 목표
들을 집중적으로 맹렬히 타격
하였다.

멸적의 강철포신들이 시뻘건
불줄기를 연해연방 내뿜었다.

우뢰같은 폭음은 인민군장
병들의 가슴속에 다져진 증오
와 분노, 참을길 없는 보복일
념의 강렬한 메아리였으며 멸
적의 불줄기는 박근혜 《정권》
에 비참한 종말을 안기는 준엄
한 철추였다.

《적》의 소굴들은 불도가니
로 화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는 영웅한 전선포병들이 목표
들을 사정없이 두들겨패는것을
보시고 가슴이 후련하게 정말

잘 쏜다고 하시면서 타격이 매우 정확하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
시하시고 연습에 참가한 전체 부대들에 조
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
대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
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전능력을 갖춘 일
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동상
태를 유지하여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원쑤들이 배겨있는 악의 소굴인 서울시안
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개
버리며 진군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
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 선박수리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뻐이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선박수리부문에서도 본보기, 표준이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약전작업반, 기관수리직장, 가공직장, 시운전장, 도크, 부두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이 준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해 투쟁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과학자, 기술자,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극한 정성이 곳곳

마다에 스며있는 10월3일공장은 군민대 단결의 위력이 낳은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원수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짓부셔버릴 멸적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이고있다고 하시면서 10월3일공장의 로동계급들도 천만군민의 거세찬 숨결에 박동을 맞추어 공장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령해방위이자 조국방위이라고 하시면서 10월3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이 주체적해군무력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새 기계제품개발사업진척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최첨단 기계제품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보시며 불수록 마음이 호뭇하다고, 장관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준 과업은 그 어떤것이라도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2월11일공장은 영웅칭호를 받을만 하다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관직장, 주강직장, 조립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맡겨진 생산계획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문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여러가지 용도에 쓸수 있는 성능이 높은 중기계들과 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데 대한 문제, 생산용자재와 부속품의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련관단위들에서 질 좋은 협동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안에 차넘치는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세차게 폭발시킨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들이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제품개발 및 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신형대구경방사포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고 대출력 고체로켓트발동기지사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신형대구경방사포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감시소를 차지하시고 대구경장거리방사포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신형대구경장거리방사포의 사격결과를 보시고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남반부작전시대 적대상물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정밀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이 방사포무기체계를 만들어낸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무기개발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국방과학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철야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뭍소 시험현장에 나오시여 대출력고체로켓트발동기지사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시험결과 예측값과 측정값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되었으며 모든 과학기술적 지표들에 완전히 부합된다는것이 확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박수를 쳐주시며 축하한다고, 훌륭하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비상한 창조적열정과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 견인불발의 의지에 의하여 우리는 또다시 과학의 큰 령마루를 점령하

고 나라의 로켓트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였다고, 오늘은 정말 좋은 날, 영원히 잊지 못할 날, 력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자력자강의 힘으로 력사적이며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대출력고체로켓트발동기지사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국방력강화를 위해 악전고투하며 투쟁한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남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우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미제와 박근혜 역도의 비참한 종말이 그대로 보여주게 될것이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중대 보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박근혜적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방동이 극한계선을 넘어서고있다.

3월 21일에는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공중대지상유도탄을 장착한 16대의 전투폭격기편대군을 동원하여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이라는것을 감행하였다.

훈련에는 준비된 악질특전병력들도 동원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명적인 도발이며 후회도 용납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대결망동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이미 벌려놓은 《북중심내륙진공작전》과 《평양점령작전》, 《참수작전》 등이 지상과 해상에서 우리 수뇌부를 노리고 감행된 엄중한 도발이었다면 이번 《집무실정밀타격훈련》은 공중에서 우리 수뇌부

를 목표로 삼고 감행된 가장 로골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도발망동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핵제거》를 실현할수 없다는 미국상전의 검은 속내가 깔린 떠벌임과 함께 박근혜년이 3월 21일에 소집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아무런 위수습대책도 없이 북과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췌친 독기어린 폭언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된것으로 하여 더욱 방관시할수 없다.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정규부대들과 로동적위군, 붉은청년군위대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무력과 전체 인민들의 일거일동은 박근혜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될것이다. 우리의 보복전은 성스러운 수령결사옹위전

이며 자비를 모르는 원수적멸전이다.

우리의 보복전은 청와대안에서 시작될수도 있고 청와대가에서 시작될수도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 전략군의 실전배비된 초정밀타격수단들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 청와대를 포함한 남조선지역안의 모든 적소굴들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선포한 상태이다.

무적을 자랑하는 우리 포병집단의 위력한 대구경방사포들도 박근혜가 도사리고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불바다가 되고 타격하면 재가루가 되게 되였다.

남반부작전시대에 투입될 우리의 적후부대들은 임의의 시각에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대상들을 단숨에 깔고앉아 박근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폭풍작전, 번개작전에 진입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 우리의 최고수뇌부, 최고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천만군민의 멸적의 기상을 미제와 박근혜패당은 똑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제와 박근혜적패당은 이미 할것은 다 해놓고 가질것은 다 가지고있다는 우리의 경고를 절대로 흘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잔명이라도 부지하려면 어리석게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일단 결심하면 박근혜적패당은 물론 침략의 크고작은 모든 본거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한 우리 식의 선제공격작전이 세계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불이 번쩍 나게 벌어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와 박근혜적패당의 비참한 종말이 그대로 증명해줄것이다.

주제 105(2016)년 3월 23일
평 양

병진로선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3월 31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 지 3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는 오늘의 현실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내다보시고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밝은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선견지명, 령도의 위대성,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되새겨보고있다.

새로운 병진로선이 제시되던 때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앞에는 날로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반미전면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히 이 세상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백두산대국으로 빛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조성된 엄혹한 정세와 민족자주위업실현의 합법적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천명하시었던것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고 구현해오신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으로서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병진로선이 발표된 후 세계는 《조선은 재래식무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 더 많은 자원을 경제발전에 돌릴것이다.》, 《북조선은 핵보유국이다. 이 한마디에 담긴 무한한 의미는 마술과도 같이 북조선에 무한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줄것이다. 이제부터 시련과 난관은 있어도 끝이 짧고 일시적인것이 될것이다.》고 평하였다.

대국중심의 강권과 전횡이 날로 살판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번영을 이룩하자면 경제건설뿐아니라 국방건설도 다 같이 내밀어야 한다.

강국은 단지 경제력의 발전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후손만대의 안녕을 영원히 지켜줄수 있는 강력한 군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다.

군력이 강해야 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그렇게 될 때 비약적인 경제발전도 이룩될수 있다는것은 오늘날 세계정치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심각한 교훈이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해주었다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넘어가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침략의 희생물로 되는 비극적사태까지 초래하였다.

제반 사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병진로선이야말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공화국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들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는것을 보여주 고있다.

오늘 병진로선은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공화국의 군사력을 보면 잘 알수 있다.

2015년 5월에는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올 해 1월에는 수소탄시험에서, 원전성공하였으며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하고 탄도로켓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도 성공함으로써 주체

적국방과학기술의 높은 경지를 온 세계에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최근 미국회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북부군사령관이 북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에까지 보낼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북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명을 지른것은 공화국의 군력이 얼마나 적대세력에게 무서운 전율과 공포를 주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강점 미군과 괴뢰호전광들이 《미싸일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전율하는 공

화국의 신형대구경방사포와 최고수준의 사거리와 명중성, 장갑관통능력과 파괴력을 가진 신형반땅크유도무기체계는 무진막강한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명백한 증명으로 된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핵경제병진로선은 북에서 김정은시대를 이끌어갈 국가전략》이라고 하면서 병진로선에 따라 지난 3년간 북은 경제상황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성과를 거두었으며 핵능력의 증강도 추진하였다고 평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권리행사를 시비하며 비렬한 제재와

대규모의 북침핵전쟁소동에 광분하고있지만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맞받아나아가면서 강성국가건설에서 련일 기적과 사변들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는 병진로선을 만능의 보검으로 들어쥐고나가는 한 반미대결결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변의 신념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 애국의 병진로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주와 정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며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향상은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고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악랄하고 끈질긴 군사적위협공갈과 경제체제 등 각방조로 되는 압력속에서도 인민들의 복리는 날로 향상되고있다. 어떻게 하나 조선을 준비경쟁에 끌어들이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활동을 저해하려는 적대세력의 악랄하고 끈질긴 도전을 물거품으로 되게 하고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새로운 병진로선이다.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의해 자위적억제력이 질량적으로 강화됨으로써 공화국은 적은 비용으로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일을 마음놓고 마음먹은대로 하고있다.

병진로선이 제시된

2013년 한해에만도 룡라 인민체육공원, 마식령스키장,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들이 건설되어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된 모든 설비, 많은 자재와 원료 등 막대한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누구의 지원에 의하여 생긴것이 아니다.

가장 현명하고 정당하고 과학적인 병진의 궤도를 따라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인민의 리익과 기호, 물질문화적요소와 문명생활의 요구에 맞게 해결한것이다. 적대세력은 애초부터 공화국의 병진로선에 대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이다.》, 《전혀 실현불가능한것이다.》라고 시비 중상하였으며 각방으로 압살의 도수를 더 높였다. 제재압박으로 목조르기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바랄수 없다고 위협공갈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살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였지만 공화국은 병진의 길로 더 배심있게, 즐기게 나

아갔다.

결과는 적대세력의 궤변대로 경제가 엄중한 지장을 받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로 더욱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지난해에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하나의 농장도시로 일신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새로 개진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원산구대공장과 평양강변이공공장, 평양메기공장, 5월9일메기공장, 정성제약종합공장, 금집체육인종합식료공장, 류인신발공장 등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건축물들, 산업시설들과 생산기지들의 면모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 하나하나는 다 병진로선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실증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수해로 많은 물질적손실을 입은 최북단 라선땅에서 130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준비하게 건설된 백학동지구를 비롯하여 청계동, 유현동, 판곡동지역이 불과 30여일동안에 원상복구정도가 아니라 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복구되고 가정생활용품까지 돌려져 주민들에게 잃은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게 된것도 병진로선이 없었으면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 우리에게 강위력

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로력을 총집중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오한 통찰력과 령도의 비범성이 온 나라에 건설되는 창조물마다에, 인민생활향상의 갈피갈피에 그대로 깃들여 있다. 얼마전에는 적대세력의 악랄한 제재소동과 핵전쟁위협속에서도 최상의 문명수준을 보여줄 새거리인 려명거리건설이 선포되는 회한한 사변도 펼쳐졌다.

자위의 힘, 창조의 보검인 병진로선을 떠나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향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세기적변혁과 놀라운 기적, 거창한 현실을 생각할수 없다.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정치경륜으로 새로운 병진로선을 내놓으시고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헌신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강산이 아침저녁으로 변하고 1년을 10년만갓이로 주름잡으며 비약하는 만리마시대와 더불어 인민의 리상과 꿈이 실현된 사회주의 문명국가의 래일이 밝아오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근 70성상의 년대우에 3년이란 길지 않는 나날이다.

그러나 이 나날 우리 조국의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었다.

특히 국방과학부에서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경이적이라고 할수 있다. 다른것은 내놓고라도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수소탄시험에서의 대성공은 우리의 군사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준 일대사변이라고 할수 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제재와 군사적위협이 날로 더욱 로골화되는 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이 이렇게 강대

한 힘을 가질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이 있기때문이다.

적대세력들이 우리보고 병진로선을 포기하라고 악에 받쳐 고아내고 있다.

이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내놓으라는것과도 같다.

병진로선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주고 잘살게 해주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포기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조선에서 병진로선 포기같은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나는 교육사업에 더욱 전심전력하여 과학으로 애국의 병진로선을 만들어갈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강좌장 정승수

자 강 의 힘 으 로

애국의 병진로선을 관철해가는 길에서 우리 련합기업소가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자체로 개발해낼수 있는 요인은 다름아닌 자강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강력은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힘이다.

이 힘을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안겨주셨다.

지난해 7월 우리 기업소를 찾으시어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을뿐아니라 개발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러시고도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를 친히 타보신 그날에는 우리 식

의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개발할수 있는것은 자력경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점밑에 투쟁한 결과이라고,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무엇이든 다 만들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크나큰 신심과 고무의 말씀을 하여주시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믿음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 높이 우리 식의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 위대한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겠다.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작업반장 박문선

승리의 러름이 밝아오는 거리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러름거리건설을 선포하신 소식에 접하여 끝없는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러름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건설이 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다치면 터질듯 한 최악의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수소탄 시험과 주권국가의 당당한 합법적권리인 인공위성발사를 걸고들면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가장 극악하고 비렬한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미국, 일본, 남조선 등지에서는 《독자제재》라는것들을 련이어 발표하며 공화국을 최대로 압박해나서고있다. 한편 적대세력은 3월 7일부터 《키리졸브》, 《독수리 16》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벌려놓고 《평양절령》과 《참수작전》까지 운운하며 북침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핵무기를 적재한 미국의 각종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전단까지 조선반도로 이동전개하며 조선반도의 핵전쟁발발위험을 최대로 고조시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세계는

최악의 제재와 군사적위협에 직면한 공화국의 대응과 조선반도의 정세를 지켜보고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제재와 위협에 굴복하고 주저앉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탄공개 등 자위적국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이 련속 과시되고 그속에서 이번에는 회한한 하나의 거리를 올해안에 건설한다는 웅대한 수도건설계획까지 공포된것이다.

이것은 보통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다. 제재와 압살소동을 자강의 힘으로 맞받아나가며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공화국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러한 준엄한 때에 현대적인 거리건

부러울것 없이 잘사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선군조선의 이념과 의지의 선언이 러름거리건설선포에 그대로 응축되어 세상을 뒤흔들고있다.

러름거리건설의 선포는 공화국의 역센 자주의 기상과 함께 무궁무진한 자강의 힘도 남김없이 시위해주고있다.

이번에 건설되는 러름거리는 평양시 룡홍네거리의 영생탑주변에 웅장화려한 고층건물들로 궁전주변에는 아담한 다층건물들을 일떠세우며 탁아소와 유치원, 세탁소와 체신소 등 공공건물들과 봉사망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건

설을 생각조차 할수 없다.

조선은 불법 무도한 《유엔결의》라는것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으며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지금의 제재와 위협보다도 몇배, 지어 몇십배 더한 제재와 위협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의 힘으로 인민이 세상과 결심이 곧 빛나는 현실로 되고있다. 령도자의 구상에 따라 지난해에 대동강반에 웅군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눈부신 룡홍네거리를 일떠세운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적대세력들이 그 어떤 제재와 압살의 광풍을 몰아와도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고 러름거리건설을 비롯하여 인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잘살 문명국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하기에 러름거리건설을 선포하시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수들의 발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은 우리가 전진하

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고 하시면서 러름거리건설착공의 첫삽을 박는것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리로 원수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더러운 몸통아리에 치명적타격을 안기는 비수를 꽂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러름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정치적계기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제재와 위협을 박차며 자기 힘으로 조선식의 최상의 문명을 창조해가고있는 공화국의 수도에는 이제 머지않아 세계가 부러워할 최한한 러름거리가 웅장하게 솟아나게 될것이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오늘도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지척에 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이 바라보이는 뜻깊은 곳에 일떠서는 러름거리. 이 웅장한 거리의 건설과 더불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러름은 지금 밝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1년에 새 거리를 하나씩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공화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소식이 전해져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웅장화려하게 일떠설 러름거리건설의 선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최근 수년간에만도 해마다 새 거리가 일떠서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였다.

2012년에는 현대적인 창전거리가, 2013년에는 은하과학자거리가, 2014년에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5년에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을 따라 미래과학자거리가 웅장화려하게 일떠섰다.

창 전 거 리

2012년 6월에 완공된 창전거리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로부터 대동강기슭을 따라 형성되였다. 인민극장파류선형, 각종, 원형 등 각이한 건축형식을 이룬 초고층, 고층살림집들, 각종 봉사시설들이 최

한하게 솟아오르고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가 훌륭히 실현되였으며 건축 및 거리형성의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2011년 5월에 착공된 창전거리건설의 하루하루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공화국의 담력과

배짱을 과시한 영웅적투쟁의 날이었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과 20여일동안에 종래의 낡은 거리를 통채로 들어내고 착공한지 한달만에 기초공사를 끝냈을뿐아니라 불과 20시간만에 아파트의 한개층을 조립하는 새로운 평양시간,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창전거리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창 전 거 리

2013년 9월 평양시교외의 넓은 부지에 1 000여세대에 달하는 21개호동의 새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16개 장소에 꾸러진 아동공원, 소공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로 이루어진 현대적이며 특색

있는 은하과학자거리가 일떠섰다.

2013년 2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은 하 과학 자 거 리

기하시고 건설부지도 정해주시였다.

2014년 3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정신으로 낮에 밤을 이어가며 결사전을 벌려 불과 7개월동안에 방대한 규모의 새 주택지구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세차게 지퍼올려 한적하던 별관을 거창한 전구로 전변시키고 불과 7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은하과학자거리건설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 과학자주택지구

2014년 10월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는 24개호동의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과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공공건물, 공원들이 종합적으로 꾸러져있다. 아담한 살림집들마다에 현대적

인 가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이 그리는 설계도우에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며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자주택지구건설을 직접 발

펼쳐진 새롭고 특색있는 거리이다.

이제 21세기의 에네르기절약형거리, 특색형거리인 러름거리까지 일떠서면 수도 평양은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되고 인민들의 문명의 웃음꽃은 더욱 만발하게 될것이다.



위성과과학자주택지구

미 래 과학 자 거 리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미래형의 독특한 건물들이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는 문명개화기가 펼쳐지는 시대에 평양에

본사기자 고영숙



미 래 과학 자 거 리

위대한 인민의 모습

락원땅에서 울린 신념의 목소리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41(1952)년 6월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락원기계제작소(오늘의 락원기계연합기업소)로 향하시였다. 미세공중비적들이 신의주지구에 대한 폭격을 감행한 바로 그 날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락원기계제작소에 도착하신것은 긴긴 여름해가 진지도 퍼그나 오래된 후였다. 아직도 신의주쪽에서는 화광이 번쩍이고 폭음이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마사진 벽돌과 파철들이 더미를 이룬 험한 구내길을 지나 주철직장에 이르시였다. 마침 직장에서는 10명의 당원들이 모여앉아 전시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당세포총회를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딱딱한 긴 나무결상에 앉으신채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야 그들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당원들은 환성을 울리며 그이를 예뻐했다. 불빛이 희미하여 모든것이 어렴풋하였던 방안이 금시에 환해지는듯 하고 뜨거운 감격의 파도가 세차게 설레었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일을 보살피시느라 분초가 새로우신 위대한 수령님을 그들도 눈들의 폭격만행이 그 어드레보다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자기들의 공장, 자기들의 세포회의장소에 모시게 되리

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당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환희와 행복감으로 벅차올랐다.

그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락원의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사기가 좋다고 하시며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세 좋게 일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해주시였다.

사실 그들은 얼마전에 적기의 폭격으로 깨어진 용선로를 다시 일으켜세우고 쇠물을 뽑아 전시생산을 계속 보장하고있었으며 그날도 적들의 폭격을 무릅쓰고 하루과제를 다수행한 다음 세포회의에 모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늘 공장에서 일하는 당원들앞에 나선 첫째과업은 전시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원들이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어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형편도 알아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면서 한집안식구처럼 크고작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소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였는지 당원들은 어려움일 있고 자기들의 속생각까지 죄다 말씀드리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전후복구건설 문제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

미만 남은 평양의 거리들과 방금전 여기로 오시면서 목격하신 참상이 가슴아프게 안겨와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이 큰것만큼 복구도 그만큼 어렵고 힘에 겨울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으로 될것이었다. 잠시후 좌중을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파괴된 공장도시와 농촌을 복구건설하여야 한다, 파괴된 공장도시와 농촌을 복구건설하려면 곤난이 많을것이다, 로력도 모자라고 기술도 딸릴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복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따금 폭음과 함께 창문유리가 가늘게 떨리고 매캐한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쉬임없이 계속되고있는것이였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있었다.

이때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속깊이 되새겨가던 한 젊은 녀성당원이 옷깃을 바로잡으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 올리였다. 《수령님! 녀려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놓고간것도 우리는 2~3년동안에 다 복구해가지

고 잘살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으니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 결의다지듯 또박또박 힘주어올리는 그의 말은 확신에 넘쳐있었다. 그것은 거기에 앉아있던 10명 당원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녀성당원이 무릅없이 울린 소박한 말을 들으시고 못내 대견해하시면서 그에게 무슨 공부를 하였는가, 아이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친부모의 심정으로 물어보시였다. 그는 적들의 폭격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아들딸까지 다 잃고도 슬픔을 꺾고 이겨내며 수령님만 계시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을 안고 전시생산에 있는 힘을 다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녀성당원을 통하여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함없이 역세계 싸워나가고있는 노동계급의 영웅적기백과 불굴의 의지를 보시였으며 이런 노동계급, 이런 당원, 이런 인민들과 함께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것 같았다.

수령은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수령만을 하늘같이 믿고 따르는 이런 일심단결의 힘이 있어 이처럼 간고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공화국의 승리로 끝날수 있었던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공화국에서 려명거리건설을 하고있는 원칙이고 자세이다. 세상에 선포하였다. 평양시내 가렬한 전화의 나날 승리할의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며 평양 리사이에 날로 비약하는 공화국 시복구건설총계획도가 작성된것의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이나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봉축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 피》는 시간문제라고 떠벌이며 모에 맞게 특색있고 웅장화려한 려명거리가 일떠서게 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동원되였던 군인건설자들이 또다시 려명거리건설에 파견되였다. 이렇듯 담대한 용단은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 작하고 화약내질은 불구름을 몰아오며 전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기도가 한계점을 넘어서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군대는 최대의 격동상태, 출전대기상태에 들어가고 위력한 탄도탄로켓들과 각종포, 비행기들이 명령만 내리면 남조선작전지대안에 섬멸적포화를 들씌울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한명의 병사라도 전선에 더 필요한 때에 공화국에서는 수많은 병력을 뚝 떼내어 평화적건설에 돌리는 조치를 취한것이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공화국이 인민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원수들의 압살광풍이 아무리 모질게 몰아 쳐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부동한가를 잘 알수 있다.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오늘밤 12시까지의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와 건설을 계속 해야 한다 는것은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

본사기자 홍범식

인간사랑이 인간증오를 이긴다

최근 몇해어간에만도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정세가 최대로 복잡하고 긴장한 속에서도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해마다 거리들을 하나씩 일떠세워왔다.

지금 공화국이 벌리는 반미최후대결전도 적대세력의 날로 가증되는 침략위협과 압살소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인민들의 행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가장 정의로운 싸움이다.

인민들의 자주적존엄과 행복한 삶이 그토록 소중하기에 공화국은 지금과 같은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는 사변적인 사랑의 조치를 취한것이다.

려명거리건설이야말로 이 행성에서 침략과 위협이 어디에 있고 사랑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확인해주는 생동한 증거물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사랑과 정의는 인간증오와 불의를 이긴다.

인민의 존엄과 행복이 최우선 시되는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극악무도한 제재와 압박소동을 짓부시며 이 땅우에 인민의 무릉도원을 더욱 희한하게 가꾸어갈것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얼마전 기사는 리문철 교육위원장 회 교육방법국장을 만났다.

기자: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으면 한다.

리문철: 사실 보통교육과정안을 1년 더 늘이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졸업학년을 한해 더 늘이는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된후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새 교과서집필을 놓고

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우리는 달라진 교육체계에 맞게 유능한 교원들을 집필력량을 못하고 학생들에게 산지식을 배워주며 그들의 응용능력을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교과서들을 다시 집필하였다.

소학교 교과과정안이 1년 더 늘어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지식을 보다 공고히 다질수 있게 되었다.

기자: 교육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리문철: 훌륭한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교원들의 자질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도 높아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교육사상을 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교원들이 직접 다매체교수안을 작성하고 조건과 환경, 대상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있다.

해마다 교원들을 위한 교수강습에서 교육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이 과

정에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방법들이 수많이 창안 도입되고있다.

학교들에서 다매체교실을 꾸리고 구내망을 통한 교육체계를 받아들여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해나가고있다. 교실들과 실험실습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한편 정보기술습실을 꾸려 국부망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교사외벽에 타일을 붙여 학교의 면모를 일신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늘어나는 학생수에 맞게 부족되는 교실들을 더 늘이고 학교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국가의 지원밑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우리는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겠다.

요평양은 명외품, 명왕품

우아하고 세련된 농그릇 제품들

지난해말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선로, 농수수그릇, 농밥국그릇, 농수저제품들이 명제품들로 평가되어 국내최우수제품들에 수여하는 12월15일품질메달을 수여받았다.

일반적으로 동, 석,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농그릇들은 심장병, 간염, 암, 뇌혈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치료를 효과 가 대단히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다.

동은 몸안에서 피만들기에 직접 참가할뿐 아니라 류산동과 같은 동화합물은 벌레들과 균을 죽이는데도 쓰인다.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건강에 리로운 농그릇제품들을 생활에 많이 리용해왔다.

오래전부터 우리 겨레는 밥, 국, 나물, 찬 등 음식물을 농그릇에 담아먹으며 시루, 화로도 농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물물 가득채운 독안에 농을 넣어 물을 정제하기도 하고

절일음식물의 부패변질을 막기 위해 농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농제품들은 무거우면서도 탄산가스의 작용을 받아 변색되는 농쇠의 성질로 하여, 합금제품이나 화학제품의 광범한 사용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여 식당을 비롯한 제한된 부문에서만 사용되고있었다.

그러던것을 최근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에서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색깔과 은은한 광택, 정교한 장식부각을 하여 세공품을 련상케 하는 농그릇제품들을 만들어 내놓아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주물이 아니라 압연

하여 늘구는 방법으로 종전보다 원료를 훨씬 절약하면서도 농그릇형태를 마음먹은대로 다양하게 하고있다.

이들은 아연과 황동을 기본금속으로 하여 내식성을 높이고 적당한 량의 석을 섞어 농그릇의 색깔을 보다 화려하게 할뿐 아니라 농그릇의 결과 안을 연마할수 있는 설비와 압연한 얇은 금속판을 맹할수 있는 풀과 광택제를 자체로 만들어 생산에 리용하고있다.

이들의 정성이 깃든 노르스름한 색깔과 현란한 광택, 세련된 장식을 한 신선로와 국수그릇, 밥국그릇, 밥주걱, 차잔, 양념단지 등 갖가지 농그릇제품들은 대번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당긴다.

공장에서 만든 질 좋은 농그릇제품들은 지금 광복지구상업중심, 평양시안의 백화점들을 비롯한 여러 상업봉사망들과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 설치된 봉사매대에서 판매되고있는데 그 수요가 매우 높아 미처 생산을 따라세우지 못할 정도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우아하고 세련된 각종 농그릇들은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된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인기를 모았다.

리철배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 지배인은 말한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보여주는 농그릇제품들을 다양하면서도 더욱 우아하고 품위있게 만들어 세계최우수제품으로 되게 하겠다.》

본사기자 류현철



제재와 위협은 북을 더욱 강하게 한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그 무슨 《북핵포기》와 《변화》의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대조선제재와 군사적위협소동을 날로 확대강화해가고있다. 얼마전 박근혜도 공화국에 대한 《제재강화》와 그 누구의 《변화》에 대하여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들은 조선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하는 껌변이고 무모한 발작중이다.

핵 위협에 자위적 억제력강화로 맞서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안되는 핵강국이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부장관 스테인버그가 《북조선의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압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묘수가 더이상 없다.》고 실로하고 《이제 남은것은 미국이 조선의 핵선제타격능력을 어떻게 저지시키겠는가 하는것뿐》이라는 우려가 미국내에서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공연한것이 아니다.

사실 미국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공화국은 오늘과 같은 핵강국이 되지 못했을것이다. 핵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고 그것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도 생겨나지 못했을것이다.

오래동안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이 눈앞에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핵위협을 하지 않는다면야 무엇 때문에 이처럼 어렵고도 간고한 핵무장의 길을 택했는가.

이러한 공화국이 핵을 가지도록 한것이 바로 최대의 적대국가인 미국이다.

미국의 이러한 작용은 장장 수십년간 공화국에

공화국은 제재와 위협을 받으면 움츠러드는 나라가 아니라 더욱 강해지는 나라이다. 그것을 모르는데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 비극이 있고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더욱 깊숙이 파고있는 어리석은 행동의 원인이 있다.

미치여왔다.

조선전쟁시기 원자탄 사용계획을 공포하며 핵공갈을 한것도 모자라 전후에는 남조선에 1000여기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항시적으로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였고, 미국이 남조선에서 명칭을 바꾸어가며 벌려온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중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등의 합동군사연습은 말그대로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세기를 이어가며 핵으로 위협하니 공화국이 허리띠를 조이면서라도 자기를 지킬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침략의 핵에 맞선 공화국의 선택, 그것이 2005년 2월의 핵무기보유선언이었고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의 련이은 핵퇴성이었다. 그것은 핵에 핵으로 맞서려는 공화국의 새로운 결단이였다.

이쯤되면 미국은 자기에게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했을것이다. 조선

을 핵으로 더는 위협하지 말고 관계개선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았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관계개선과 평화보장을 위한 공화국의 정당한 제안들을 그때마다 외면하고 대조선압살과 핵위협소동에 더욱 악착스럽게 매달렸다.

공화국을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며 《핵선제타격대상》명단에 빠졌어 올려놓고 핵타격연습도 음모양모로 벌리었다. 이에 공화국은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깨닫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항구적인 전략로선을 채택하였다.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수단으로 공화국을 굴복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기다리는 전략》이 해를 이어 갈수록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나날이 더욱 강화되어 오늘에는 최강의 억제력인 수소탄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유엔 《제재》를 조작하고 한편으로는 진략핵무기들까지 총동원하여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소동을 강화하면서 리비아에서와 같은 일이 조선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어떻게 펼쳐지고있는가.

공화국은 미국의 제재와 위협소동에 겁을 먹고 주저않고 양보하는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력강화를 위한 초강경조치들로 련속 적대세력에 맞서나가고있다. 새로운 《고강도제재》와 대규모 북침핵전쟁소동이 시작되어 한두달밖에 안되었

지만 조선에서 펼쳐지고있는 사변적인 조치들은 행성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새로운 혼합장약구조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수 있게 제작된 핵탄두의 공개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발사훈련, 탄도로켓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성공, 신허장거리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의 완성, 역사적이며 전략적의의를 가지지 않을수 없는 대륙간체로켓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의 완전성공...

하루밤 자고나면 새로운 충격적인 사변이 일어나고 다음날에는 또다른 사변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말그대로 제재와 위협의 시간에 정비례하여 공화국의 자위의 억제력

제재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자강의 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제재를 날로 확대하면 종당에는 조선이 굽어들고 《변화》의 길을 택할것이라는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것이 리비아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행성에서 가장 자주적이던 담대한 조선에는 추호도 통할수 없다는것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아직도 모르고있다.

따지고보면 공화국이 오늘과 같이 그 어떤 제재소동에도 끄떡하지 않게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게 된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끈질긴 제재소동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저

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마다 솟구치고 강화되어가고있다.

시간이 공화국의 편이라는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의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은 임의의 장소, 임의의 시각에 적대세력들에게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만단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제재를 하겠으면 하고 핵위협을 하겠으면 하라. 우리는 도발의 본거지들을 불바다에 잠글수 있는 자위의 억제력을 끝없이 강화해나갈것이다. 이것이 적대세력에 대한 중요성과 보복의지가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있는 선군조선의 드센 배짱이고 자신만만함이며 최후승리의 신공화국의 자위의 억제력

들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이러저러한 《리유》로 《경제제재》의 몽둥이를 휘둘러왔다. 하지만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에 대한 제재만큼 악랄하고 집요한 제재는 없었다. 미국은 벌써 1950년 12월에 공화국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선포하며 일체 경제관계를 단절해버렸다. 1951년에는 공화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10배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무역협정연장법》을 비롯하여 별의별 악법들을 휘두르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민수품으로부터 공장설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공화국과 모든 거래를 제한하고 금지하였다. 화장품원료는 화학공기에 쓰일수 있고 쌀은 군량미로 전용되며 화학공업에 필요할 시비들은 2중용도로 리용될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미국이 역사적으로 악랄하고 집요한 대조선제재소동에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공화국은 것처럼 곡절 많고 어려운 창조와 건설의 길을 걸어오지 않아도 되었을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런 길을 걸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았다.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갖은 제재소동에 매달려왔으며 여기에 대국주의자들의 강건과 전횡도 공화국의 앞길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것은 필연코 공화국으로 하여금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다는 각오와 결심을 백배해주었고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자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게 하였다.

그 나날에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았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바꾸며 강성국가건설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갔다.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와 봉쇄를 받으며 100% 제핍으로 만든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로 치솟았고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휘몰아쳤으며 강계정신, 희천속도가 창조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이다.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총발동하여 《류레없이 가혹한 제재》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것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력자강의 힘을 천백배로 해줄뿐이다.

조선이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에게 타격을 안기는 자강력,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미증유의 변혁을 일으키는 자강력만 있으면 두려울것도 없고 이루지 못할것이 없다는것이 공화국군민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신념이다.

적대세력의 유엔 《제재》가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없이 단호하게 맞받아 나아가며 창조와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총정의 70일전투에 진입하여 3월 상순 전격적인 공업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로 장성한 하나의 사실만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재령광산에서는 70일전투 최돌생산목표를 불과 24일만에 돌파하는 혁신적성공이 이뤄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공화국은 현대적인 새 거리를 자력의 힘으로,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자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게 하였다.

그 나날에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았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바꾸며 강성국가건설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갔다.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와 봉쇄를 받으며 100% 제핍으로 만든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로 치솟았고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휘몰아쳤으며 강계정신, 희천속도가 창조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이다.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총발동하여 《류레없이 가혹한 제재》소동에 열을 올리고

김장호

민족의 통일열망을 짓밟은 반통일패경 《정권》 (3)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의 돌격대가 되어

지난 2013년 3월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채택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법을 채택하였다. 공화국이 틀어쥔 정의 핵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위협해온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민족만대의 행복과 통일조국의 튼튼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하기에 지금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은 물론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공화국의 병진로선을 열렬히 지지찬동하고있다.

하지만 현 남조선당국은 민족공동의 재부를 마련한 공화국의 정의의 행동에 박수는 보내지 못할 망정 미국상전의 반공화국핵소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집권 첫날부터 그 무슨 《북핵포기》소동에 악착스럽게 매달려왔다. 첫 해외행각지로 미국에 찾아가면 박근혜는 공화

국의 병진로선을 《불가능한 목표》라고 모독하였는가 하면 《핵포기》니, 《반드시 폐기》니 하고 악청을 돌구었다. 지어 《영별의별 악담을 다 퍼부었다. 박근혜는 저들이 《대북정책》이라고 《광고》하는 《신프로세스》라는것이 《북핵을 용납할수 없고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보상이 있을수 없으며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는 망발까지 공공연히 뉘쳐댔다. 북과 남, 해외조국의 튼튼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도전적으로 《핵포기》를 부르짖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2014년 3월 네델란드에서 열린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한 박근혜는 《핵무기없는 세상》은 《북핵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세계평화의 큰 위

협》이니 하고 공화국을 뜯어파는 말을 늘어놓았다. 《심각한 우려》니, 《반드시 폐기》니 하고 악청을 돌구었다. 지어 《영별의별 악담을 다 퍼부었다. 박근혜는 저들이 《대북정책》이라고 《광고》하는 《신프로세스》라는 실로 무지, 무식한 망발까지 쏟아냈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생존권과 삼천리강토를 지켜내는 자위적핵억제력에 대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혈투하면서 대양건너 남의 나라땅에 술한 핵무기를 전개하고 핵항공포함, 핵잠수함, 핵전략격격기 등 첨단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주변에 상시적으로 들이치는 미국에 대해서는 뼈속소리 한마디 못하는 박근혜야말로 심장에 조선사람의 피가 아니라 얼음물이 흐르는 행렬한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도 모르면서 이처럼 지난 3년간 짬만 있으면 입에 게거품을 물고 《핵포기》를 떠들고 북의 병진로선을 헐

뜯다나니 북남관계는 개리선이나 더욱더 악화일로로만 치달았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도 박근혜의 치마바람에 맞춰 미국상전의 지휘조종아래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북침핵전쟁연습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해마다 미친듯이 벌려놓았으며 《킬 체인》 구축이니 뭐니 하면서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어찌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여왔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이러한 악랄한 핵소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민족의 머리우에는 각일각 핵전쟁의 불구름이 질어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소동이 강화될수록...

지금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날로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맞서 핵억제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의 군력을 끝없이 강화해나가는 사변적인 조치들을 련이 취하고있다.

이에 당황망조한 적대세력은 혼비백산하여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며 아우성을 치고있다. 얼마전에는 박근혜도 머리칼이 곤두서는지 《북의 추가핵시험》이니, 《철저한 대비》니 하며 악청을 돌구었다.

공화국이 자위의 억제력을 강화해나가고있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의로운 조치이다. 핵이 없던 공화국에 자위의 억제력이 생겨나게 된것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발사를 견고하며 불법무력을 유엔 《결의》를 조작해내고 수많은 핵타격수단들까지 동원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침략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이에 공화국은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설계 제작된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한데 이어 탄도로켓 전투부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진행하였다. 명증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 신허대구경장거리방사포도 련이어 발사하여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뿐만아니라 대출력고체로켓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도 하여 적대세력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

고있다. 공화국은 핵공격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핵탄두폭발시험과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시험발사를 단행할것이라고 이미 내외에 천명하였다.

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자들에게는 자비를 모른다.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소동이 강화될수록 공화국은 자기의 자위적군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신허대구경방사포를 비롯한 공화국의 최첨단무장장비들의 타격조건경안에는 미국의 핵소동에 덮어놓고 추종하며 제 죽을지 모르고 마구 날치는 박근혜역적패당도 들어있다.

박근혜는 현실을 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김문성



정의의 보복전은 어디에서부터

정의를 지향하고 정의롭게 살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요구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왔다. 유엔의 활동원칙에도 인간의 이러한 본성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자주권 존중, 영토불가침, 내정불간섭...

그렇다면 지금 조선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행진연습 운동과 그에 대처한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조치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지난 16일 한 재미동포가 조선반도에 참화를 몰아오려는 핵전쟁연습을 규탄하며 오바마에게 보낸 편지내용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

《부위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세계에 거짓말하고 이라크로 쳐들어갔다. 분명히 부위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삶을 파괴하였으며 인류유산을 파괴한 전범자이다. 지난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벌이는 전쟁연습 때문에 북의 인민들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에 격앙되어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높고 있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북에 깊숙이 쳐들어가 (원

산상륙), (평양점령)을 하고 동시에 (한)미련 합군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밀고들어간다는 작전을 연습하고 있다. 이것은 (선제핵공격), (즉집계식타격) 등 북의 핵에 대한 공격 그리고 (참수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의 사람들이 (한)미련합훈련에 왜 그렇게도 격앙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재미동포가 주장한 것처럼 조선반도 긴장격화는 바로 미국이 몰아오고 있다. 역대적으로 유엔의 활동원칙을 어기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영토를 침범한 장본인도 미국이다. 이번에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에서 벌여놓고 있는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의 내용과 성격을 놓고 보아도 그 위험성과 불순한 흉계를 잘 알 수 있다.

가깝게만 봐도 지난 3월 21일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공중대지상유도탄을 장착한 16대의 전투폭격기 편대를 동원하여 감히 공화국의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이라는 것을 감행하였다. 이미 진행된 《북중심내륙진공작전》과 《평양점령작전》, 《참수작전》 등이 지상과 해상에서 공화

국의 수뇌부를 노리는 것이라면 이번 군사적망동은 같은 목적을 공중에서 실현해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명적인 도발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대결망동이다. 이것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북핵 제거》를 실현할 수 없다는 미국상전의 검은 속내가 깔린 떠벌임과 함께 박근혜가 3월 21일에 소집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아무런 뒤수습대책도 없이 북과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쉼 없이 독기어린 폭언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된 것으로 하여 더욱 엄중할 것이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누구를 해쳐본적 없고 남의 나라 땅에 총탄 한발 날려본적 없는 선량한 인민이지만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를 해치는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야 마는 강인담대한 력사와 전통을 이어온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의를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그만큼 원수들에 대한 증오도 더욱 강렬하다.

적대세력들은 지금 정의의 보복전에 진입한 공화국의 천만군민의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정규부대와 로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공화국의 혁명무력과 전체 인민들이 최고존엄을 지켜 미국과 박근혜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원수격멸전에 떨쳐나섰다. 그 보복전은 청와대 앞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청와대 가까이에서도 전개될 수 있다.

일단 결심하면 다시고다저은 자위적억제력과 북수의 감정을 총폭발시켜 침략의 본거지들을 불바다, 재더미로 만들겠다는 공화국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공화국은 자기를 해치려는 침략세력들에게 자비를 모르는 나라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 천만군민의 멸적의 기상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박승진

김부평 바다속에 수장된 핵탄두이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동서남해에서 북침을 노린 해상훈련에 미쳐달뛰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남조선의 동서해에서는 미핵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포함한 50여척의 미군과 남조선군의 함선들과 전투기들이 동원된 대규모 해상훈련이 감행되었다. 호전광들은 이 훈련에서 《대특수전부대작전》, 《대잠수함전》, 사격훈련 등을 벌여놓으면서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이보다 앞선 18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조선남해상에서 13척의 미군과 남조선군 해군함선들과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한 《연합해상훈련》이 벌어졌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군의 지휘아래 4월초까지 《연합기뢰전훈련》이니, 《연합구조전훈련》이니 하는 것들을 연이어 벌여놓을 것을 획책하고 있다.

조선반도 주변수역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해상훈련망동들은 가득이나 침에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점점으로 끌고가는 용납 못할 군사적도발이다.

오늘날 온 세계의 이목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사상최대규모로 벌여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떠돌고 있는 조선반도에 쏠리고 있다. 이러한 초긴장

상태속에서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전멸적으로 타버리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미국이 핵항공모함전단을 포함한 첨단핵타격수단들을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다놓은 기회에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 있다.

보수패당이 모략적인 《천안》호 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이니, 《다음세대 고속정 건조》니 하면서 분주함을 피우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대극이다.

하지만 남조선보수패당이 미국을 등에 업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자위의 핵탄, 주체단, 통일란까지 보유하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조준경안에 넣고 있는 공화국을 어찌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일이다. 호전광들이 움쩍하려는 순간 침략자들을 향한 보복의 핵탄성이 하늘, 땅, 바다에서 연이어 터질 것이며 그 장엄한 회성은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의 추포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정의의 불세태앞에 적소리 한마디 못하고 검푸른 바다속에 수장된 미국의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침략선들의 신세가 참으로 가련하다.

본사기자 김철민

핵화약 더미우에서 《핵안전》타령?

미국의 워싱턴에서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제4차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것이 벌어지게 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류의 머리에 핵참화를 들뜨였으며 세계최대의 핵위협국가인 미국이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것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녀원하는 진보적인 인류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미국은 세계앞에 《비핵세계건설》이라는 간판을 빼앗아 내걸고 뒤에서 수많은 핵시범을 감행하면서 신형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한 이후의 행적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네바다주의 지하핵시범장에서 2010년 9월과 12월, 2011년 2월, 2012년 12월 등 여러차례에 걸친 림계전핵시범들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플루토늄을 리용하여 핵

무기의 성능을 검사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험들도 감행하였다.

첫 《핵안전수뇌자회의》이후인 2011년에도 미국은 뉴멕시코주의 《샌디아국립연구소》(《SNL》)에서 새로운 방식의 핵시범을 진행하였다.

미국이 암암리에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해 네바다주에서 《B61-12》로 불리우는 새로운 소형정밀 유도핵무기개발시범을 감행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B61-12》는 지하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목표물에 따라 폭발력도 조절할 수 있는 정밀유도 핵폭탄으로서 미국이 30년간 1조 US\$를 들이밀어 추진하는 핵무기현대화계획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핵운반수단들도 현대화하고 있다.

미국은 스텔스기능을 가진 신형장거리폭격기 《B-3》을 개발하여 강력한 폭격기비행대를 꾸리려

고 책동하는 한편 핵미싸일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핵공갈과 위협을 끊임없이 강행하면서 조선반도 핵위기를 증대시켜왔다.

미국은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고 임의의 시각에 핵공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가을 네바다사막에서 진행한 소형정밀유도핵무기시범을 두고 《미국의 최초의 정밀유도핵폭탄》은 《북과 같은 나라들을 녀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내놓고 떠들어댔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그 핵폭탄으로서 미국이 30년간 1조 US\$를 들이밀어 추진하는 핵무기현대화계획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핵운반수단들도 현대화하고 있다.

미국은 스텔스기능을 가진 신형장거리폭격기 《B-3》을 개발하여 강력한 폭격기비행대를 꾸리려

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의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화국의 인공지구 위성발사계획에 대해 그 무서운 《합의위반》이니, 《중대도발행위》니 뭐니 하고 걸고들며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바람을 일으키려고 분주함을 피웠다.

2014년 3월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한 박근혜 역시 《북에 핵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좀더 확고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다 못해 공화국의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헐뜯고 평화적인 핵시설까지 걸고들었다.

이처럼 역대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것은 국제적규모에서 핵안전문제를 논의한다는 미명하에 반공화국핵소동과 고립압살책동을 합리화하는데 악용되어왔다.

지금 박근혜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유엔 《제재결의》의 철저한 리행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뉘척대고 있는가 하면 회의끝에 발표될 《성명》이라는 데 그러한 조항을 박아넣겠다고 고야대고 있다.

《핵안전수뇌자회의》 개최책동은 저들의 범죄적인 반공화국핵소동을 합리화하고 더욱 강화하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해보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정적기도의 산물이다.

그것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하는 것은 2012년 3월에 외세의 군사적강점 밑에 있고 수많은 핵무기들이 전개되어 있으며 북침전쟁연습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가 벌어진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당시 리명박일당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핵 위협을 받는 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니, 《핵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첫 공적》으로 된다니 하는 수처망발들을 내뱉으며 이른바 《북핵문제》를 회의 의제로 상정시키려고 책

본사기자 주광일

초정밀방사포탄맛을 보여주겠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증대보도에 접한 우리 방사포병들의 가슴은 미제와 박근혜적패당에 대한 사무치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끓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3월 21일 공중대지상유도탄을 장착한 16대의 전투폭격기 편대를 동원하여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이라는 것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이 훈련에는 준비된 악질투병력들도 동원되었다. 이것은 공화국 천만군

민의 생명이고 미래인 최고존엄에 대한 치명적인 도발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대결망동이다.

미국과 박근혜적패당의 무모한 망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백두산혁명강군 총화된 핵탄을 만장약하고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원수들의 아성부터 정조준하여 재가루로 만들 만단의 준비를 이미 끝낸 상태이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이것이 지금 이 시각 우리 일당백포병들이 웨치는 구호이다.

바늘귀를 꿰듯 정확성을 가진 신형대구경방사포로 무장한 우리 방사포병들은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멸적의 포화를 날리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해나선 자들은 초정밀방사포사격에 멸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어디든 숨어봐라, 우리 신형대구경방사포병들은 그곳이 하늘이든 바다가든, 땅이든 땅속이든 시간엔 마지막 한놈까지도 모조리 찾아내어 멸적의 포탄세례를 안기 고야말 것이다.

조선인민군 포병군관 김학성

신형대구경방사포의 타격권안에 들어있다

얼마전 또다시 성공적으로 진행된 공화국의 신형대구경방사포사격으로 하여 공포와 불안에 잠긴 것은 남조선이다. 남조선의 군부인물들이 저마다 나서서 《중대한 위협》이니 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차량에 탑재된 신형방사포를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처럼 쏟아지는 로켓을 무력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남조선내 미공군기지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번 발사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처럼 신형대구경방사포는 수백km 떨어진 목표물을 마치 바늘귀를

꿰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타격하는 놀라운 명중률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다가 방사포탄은 고에너지를 물질을 혼합하여 방사탄전투부의 파괴살상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한번에 수백, 수천발이 낮은 고도에서 거의 동시에 날아오는 이 방사포탄을 막을 수 있는 요격체계는 아직 이 세상에 없다.

이 대구경장거리신형방사포는 군사전문가들이 일치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서울은 물론 남조선군의 룩해공군본부가 있는 충청남도 계룡대, 군산의 미군기지들까지 사정권안에 들이므로 사실상 남조선 거의 전지역을 타격권내에 두고 있다.

그러니 적대세력들이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화국이 보유한 각종 탄도로켓들도 위력적이지만 실전배비되고 있는 이 방사포만 가지고서도 도발의 본거지들을 얼마든지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군대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대구경방사포사격은 제재와 전쟁열에 들떠돌아가는 호전세력들에게 보내는 단호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지금 신형대구경방사포들은 모든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를 포함한 타격대상들을 순간에 초토

화시킬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불바다가 되고 타격하면 재가루만 남게 되어 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잔명이라도

부지하러면 어리석게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신형대구경방사포들은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리 어 금



안절부절 못하는 미국

올해 정초에 조선에서 울린 수소탄시험의 폭음에 미국은 화답당 놀랐다. 두뇌진들이 모여앉아 대응책을 강구하느라 복작이는데 미처 정신을 수습할 새도 없이 2월에는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4》호가 우주로 기운차게 날아올랐다.

스스로 《반장》이 된 미국

조선의 자주권행사에 당황망조한 미국은 《도발》이니, 《위반》이니를 떠들며 세계여론을 오도해갔다. 그러면서 《전례없이 가혹한 제재》를 가하되다며 별의별 수단을 동원하여 이 나라, 저 나라들과 부지런히 정치적홍정을 벌렸고 50여일이 지나가까스로 유엔 《결의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켰다. 그리고는 그 《제재결의》가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면서 유엔성원국들을 들볶느라 여념이 없었다. 유엔 《제재결의》외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안》을 만들어내고 남조선선을 비롯한 추종세력들도 저들의 본을 따르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조선반도 주변국들과 아시아나라들에 저들의 차관, 부차관급 인물들을 보내어 제재가 《실속있게》 진행되는지를 감독, 감시하고있다. 스스로 《제재반장》이 되어 동분서주하고있는 미국을 보니 이번 제

이에 미국의 대응은? 조선에 대한 제재와 조선반도에 대한 핵무력집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과거의 되풀이였을따름이었다. 오히려 미국의 불안과 조급증을 보여주었을뿐이었다.

제놀음에 명줄이 걸린듯이 찢먹은 힘까지 다 짜낼 기세다. 하긴 틀리는 말도 아니다. 이제 몇달 지나면 있게 될 미국대통령선거와 함께 오바마정권의 정치적 운명도 끝나게 된다. 2기동안이나 《조선정책》으로 《전략적인내》를 견지해왔건만 조선은 한점의 《변화》는 고사하고 일심단결의 정치강국, 막강한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는것이다. 아무런 성과도 못낸 《전략적인내》는 철이 지난 채화품으로 전략되고말았다. 조급해날수밖에 없다. 어떤 수단을 쓰든 또 무슨 방법을 쓰든 《전략적인내》가 결코 잘못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인내》를 버리고 스스로 《반장》이 되어 적극적인 제재행동에 앞장선것이다. 이번에는 조선이 반드

시 《변화》할것이라고 《장담》하며 그것이 《전략적인내》라고 자체위안도 하면서...

몇대를 이으며 미국대통령들이 지난 수십년간 제재소동을 벌려왔어도 《변화》시키지 못한 조선 **제재로 안되면 핵몽둥이라도?**

제재소동과 함께 조선반도에 집중된 미국의 핵전쟁무력은 왜서인가.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치레거리도 벗어던지고 《북조선붕괴》, 《참수작전》, 《평양진격》 등을 전면으로 걸고서. 여기에서도 오바마정권의 불안한 심리를 엿볼수 있다. 2008년 대통령선거때 오바마는 《6자회담과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공약했다. 막상 대화문제가 제기되면 《선비핵화》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자면 그 발생근원인 미국의 핵위협부터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의 비핵화에서 시작해야 하고 세계의 비핵화로 끝나야 한다는것이 조선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역설적이게도 《핵무기없는 세계》를 위한 창끝을 조선으로 돌리고있다. 그러면서 조선을 계속 핵으로 위협하고 압박하고있다. 올해 초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지난해 가을 네바다사막에서 소형 정밀유도핵무기시험을 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의 최초의 정밀유도핵폭탄》은 《북조선과 같은 나라들을 넘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보도했다. 《선비핵화》는 미국의 《대화조건》이 아니라 조선의 자위적억제력을 제거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고 《핵무기없는 세계》란 미국은 제외한 《핵무기없는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을 과연 오바마정권이 겨우 몇달동안에 어쩔수 있겠는가.

거덜이 난 《전략적인내》를 부여잡고 안절부절하는 미국의 불안한 심리가 이번 제재놀음에 비껴있다.

핵몽둥이라도?

거기에 반발하여 조선은 최강의 수소탄을 보유하고 자위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있다. 미국은 이것을 두려워한다. 《전략적인내》의 총과산은 불가피하고 미국의 체모가 완전 구겨지때문이다. 조급해한 미국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끌어모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파견하여 핵위협정도가 아니라 《북붕괴》를 겨냥한다. 하지만 그나마도 오산이다. 최강의 수소탄을 보유한 조선, 핵에는 핵으로 대담하는 조선과의 핵대결전에서 미국은 돌이킬수 없는 커다란 재난을 입을수 있기때문이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미국은 전쟁연습에 많은 돈이나 쏟아붓다 제풀에 주저앉고말것이다. 향후 조선반도의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것인가.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조선과의 평화협정대화탁에 나앉을것으로 관평하고있다. 조선이 다져놓은 자립정밀유도핵무기시대와 최강의 자위적억제력에는 제재도 핵위협도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재중동도 김정수**

반반스런 《일자리》라령

선거때 것처럼 입이 닳도록 떠들던 《국민행복》, 《경제민주화》와 《맞춤형고용복지》 등을 집권하자마자 헌신짝처럼 내던진 박근혜이다. 옹당 하 돌봐야 할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뒤전에 미루

얼마전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100명의 기업가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먹자판을 벌려놓고 일장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박근혜는 《(정부)가 지금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로동개혁을 추진하고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기업을 토하였다. 역시 재정은 없고 남탓만 할 줄 아는 박근혜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심각한 실업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심각한 실업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심각한 실업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심각한 실업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심각한 실업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고 사대굴종과 동족대결에만 매여달리는 집권자때문에 남조선사회의 실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살길막힌 사람들의 자살행렬이 꼬리를 물고있다.

남조선의 청년실업률만 보아도 올해 2월에 들어와 12%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삶을 비판 포기하는 《다포세대》와 자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집권자가 한 말은 《중동으로 가라.》는 랭기어린 소리였다. 박근혜가 《일자리문제해결》을 위해 《로동개혁》을 추진하고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갓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각계가 《일자리창출》의 미명하에 박근혜가 생떼를 쓰며 고집하는 《로동개혁》이란 대기업들이 실업자를 대량적으로 생산해내는 로동개혁이라고 비난하며도 철회를 요구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

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에서 대기업들은 당국의 반인민적인 《로동개혁》을 등에 업고 많은 로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전락시키고있다. 이렇기니 남조선에서 《박근혜 3년만에 (단군

이래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가 출현)》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여찌 울려나오지 않겠는가. 이번이 아니다.

얼마전에는 동족대결광기로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시킴으로써 수많은 실업자들을 만들어놓았다. 남조선사회에 실업자들의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그칠새 없는데도 박근혜는 그 책임이 자기가 아닌 《국회》에 있는듯이 철면피한 수작만 늘어놓고있다.

박근혜가 《일자리창출》이니 뭐니 하고있지만 그것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보수세력들이 우위를 차지하게 하자는 간혹한 술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권》에 속출대로 속은 남조선인민들은 집권세력의 말을 콩으로 메주를 쏠때도 끈이 들지 않고있다. 《박근혜를 퇴진하라!》, 《박근혜를 처형하라!》, 《탄핵대상 박근혜 (정권) 갈아엎자!》

이것은 남조선을 실업천국으로 만든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황진욱**



신성한 이 땅에는 물릴수 없다

강 덕 현 (황해북도 증화군 명월리 농장원)

옛말에 어두운 숲속에 길손을 유혹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마귀할미가 있다고 했다. 허나 최악으로 빚어놓은 남녘땅 청와대 알뜰한 기와장 그 밑에선 옛말에서만 들던 그 마귀할미가 살기를 풍기며 재앙을 몰아온다누나. 어제저는 겨레의 따뜻한 정 넘치던 금강산관광길 한사코 가로막더니 오늘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차단봉을 내리고 양놈들을 끌어들이며 북침광란극에 지랄발광하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디에다 대고 감히 《체제전복》 《평양정령》이라니 봄날의 개꿈도 분수가 있어야지

머리를 들고 우리를 보라 지축을 울리는 천만군민의 대오를 주체당, 통일당으로 만장약된 우리의 멸적의 강철포신들을 우리는 후더운 미덕을 지니고 있지만 네년페당에게는 관대할수 없구나 네년페당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구나 네년이 새끼가 없더니 참으로 다행이다. 《묘주》도 없으니 차라리 서양으로 섬나라로 날아가다 바다속에 떨어져 시원하게 없어져라. 이 땅엔 물릴수 없다 친미친일굴종이 폭 벤 박근혜 네년의 악취풍기는 몸뚱이는 신성한 이 땅엔 물릴수 없다

만필 어느 한 《인사과장》의 고백

저는 지옥으로 들어오는 대초기에 있게 되는 부모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단 1초도 에누리없는 선배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었다. 신입사병 《환대》의식이 끝나니 이번에는 《문명군인》을 키우기 위한 《폭넓은 교육》이 려이 어 진행되었다. 선배들의 《교육》은 머리속뇌수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받아야 하는것이 묘리이다. 《과목》은 집단구타(도구로는 손에 잡히는 모든것), 인격모욕(변기활기, 인분을 손에 찍어 맛보기, 치약국 풀어먹기, 가래침 일곱바퀴...)은 물론 온갖 심부름(일명 《민음》)이라는 전제하에 선배가 용변을 다 볼 때까지 위생지 들고 서있기, 선배 손발톱 다듬어주고 속옷 갈아입히기...)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다. 목적은 신입사병들을 육체적으로 《철의 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이다. 《따뜻한 보살핌》은 이른바 육체적 《보살핌》인데 성추행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선배들은 《성기에 연고바르기》, 《홍문에 물

《은혜》와 《보답》이 오고가는 《아름다운 병영문화》가 더욱 《만발》하고있다는겁니다. 인침 시작될 《인민군아 저씨》들의 황홀한 《축도 축제》(불벼락세례)를 제일 가까이서 페부로 느낄수 있는 《특등석》(최전선)에 앉혀주고, 《불안》과 《공포》로 허기진 사병들에게 《응징》의 팽파리도 쳐주고요. 때로는 《전쟁불사》라는 노래도 즐겁게 불러주어 밤마다 저승길로 훨훨 날아가는 《희몽》도 까먹지 않고 꾸게 해주고... 지금 그 《스승》이 《내륙진격작전》과 《참수작전》이라는 《희한한 고전극》을 준비중인데 곧 《스승》과 함께 남조선군모두가 한꺼번에 옮겨라나오. 그러면서 사병이 간절한 부탁 하나 하더구만요. 인사차림은 후하게 하겠으니 그들모두가 오래 기다리지 않게 꼭 《집체등록》해달라고 말입니다. 어쩔가요? 지옥도 규율은 있어 《이중기준》이란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등록을 미리 다 해놓으면 될걸요... **김명성**